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저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6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28호

Tuesday, November 18 2025 A

소비 양극화 심각…저소득층 맥도날드도 못 먹어

저소득층 연체율 상승·소비 위축
고소득층은 고가상품 소비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한 인플레이션 흐름에 최근 관세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 신문사인 로스엔젤레스(L.A)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맥도날드·델타항공·호텔 체인 등의 매출 실적과 연체율 자료를 토대로 최근 소비 동향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소비 양극화 논란을 촉발한 것은 지난 8월 발표된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 결과였다.

맥도날드의 2분기 매출(68억4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지만 주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두 자릿수 비율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저소득층 방

문이 줄어든 만큼 늘었다. 중산층 고객의 방문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소비 양극화는 맥도날드 제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맥도날드 메뉴의 평균 가격은 2019~2024년간 40% 올랐다. 메뉴별로 보면 빅맥 평균가는 이 기간 4.39달러에서 5.29달러로 올랐다. 10조각 맥너겟 세트 가격도 7.19달러에서 9.19달러로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은 상품 가격에 추가 악재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급격

하게 오른 미국 기준금리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킨 원인 중 하나다.

신용점수 모델링 업체인 벤티지스코어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0일 이상 연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LA의 한 마트에서 보는 미국 소비자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연 가구소득 3만 달러 미만 임차인의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 소득 중앙값은 월 250달러에 그쳤다. 2001년 보다 55%나 줄어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탓에 쪼그라든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고소득층의 소득과 대비를 이루면서 소비 양극화를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델타항공의 2분기 일반석 매출은 1년 전보다 5% 줄었지만 프리미엄 좌석 판매는 5% 늘었다.

업계 조사기관 코스타에 따르면 포시즌스·리츠칼튼 등 고급 호텔 브랜드의 올해 매출은 최근까지 2.9% 늘어났지만 저가 호텔 매출은 같은 기간 3.1% 감소했다. 벤티지스코어의 리카르도 반데보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에 “저소득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매달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4만5천 달러 미만 가구의 연체율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뒤 2022년 이후 하락하지 않았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임차

인 절반 수준인 2천260만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시민과 반…“셧다운 종결, 트럼프 승리”

오바마케어 연장 무산 불만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재개동을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듯했다는 답변은 24%였다.

정당 지지층별 평가도 엇갈렸다. 공화당 지지층의 68%, 민주당 지지층의 50%가 공화당의 승리를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은 셧다운 종료 조

건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협상내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일부 중도파 의원의 이탈 속에 셧다운 종료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던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29%였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료에 대한 불안이 중장기적으로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재성 기자

▶2면 ‘셧다운 종결’로 이어집니다

SNAP 수혜자격 전면 검증

재가입 절차 통해 확인



면 2024 회계연도 기준 SNAP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수급 ▶전용 구매카드(EBT)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재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액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솔금 아기 블먼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년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타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 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2/8 ~ 12/12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추수감사절 8200만명 이동

역대 최대 기록할 듯
교통 혼잡 극심할 듯

연방항공청(FAA)이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워싱턴을 비롯 전국 40개 주요 공항에 부과했던 항공편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추수감사절 여행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오는 27일을 전후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전국에 걸쳐 8200만명이 자동차, 항공, 열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AA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여행객의 90%인 7300만 명이 차량을, 그리고 600만 명이 항공 이용을 위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국내선 왕복 항공권의 평균 비용은 700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작년과 비슷한 가격을 주유소에 지불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기간 레귤러 가격은 캘린더 3.06달러였다.

AAA에 따르면, 연휴 기간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날은 25, 26일과 30일이다.

워싱턴 지역의 최악의 상황은 25일 오후인데, 볼티모어-워싱턴 파크웨이를 타고 DC와 볼티모어를 이동하는데 평소보다 2.5배 더 오래 걸리는 1시간 50분이 걸릴 수 있다. AAA의 한 관계자는 “추수감사절은 1년 중 이동이 가장 많은 명절”이라며 “올해는 도로 교통과 항공, 선박, 열차를 통틀어 이동객 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성한 기자

‘한일령’ 돌입 中, 독도 간접거론으로 韓우회지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연일 일본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해 눈길을 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 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선 말을 아껴왔다.

이날 답변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 이후 중일 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급속히 냉각된 뒤 중국이 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공세를 펴고, 각계에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거나 경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한일령’(限日令)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는 다지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를 두고 답변했던 사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했던 2014년 2월이 대표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비판하자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이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며 “일본과 이웃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 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침략 전쟁 및 식민 통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 사실상 일본을 비판한 바 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진 홍콩 매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지난 9일과 10일 한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잇따라 전복된 뒤 한국이 신속히 경비함과 헬기를 보내 수색·구조 작업을 했다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이민정책 여파 대학 해외 유학생 신규등록 17%↓

올해 가을 학기에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기에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어든 가운데,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만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전체 등록 학부 유학생 수는 2% 늘고 대학원 유학생 수는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학교는 그 원인으로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

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천명에 달한다.

유학생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지자구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및 친(親)팔레스탄인 시위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일시적으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달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최대 6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 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 교정

[연합뉴스]

1면 ‘셧다운 종결’에서 이어집니다

셧다운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이 35%로, 부정적 평가(56%)에 크게 못 미쳤다. 민주당도 긍정 평가는 20%에 불과했고 부정 평가는 60%에 달해 부정적 여론이 더 커졌다.

연방정부는 지난 12일 일부 부처의 연간 예산을 확정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합의안을 통과시키며 셧다운을 종료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바마케어 지원 연장은 추후 표결로 넘겨졌다.

배재성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수) 53-43
	22일(토) 56-36
20일(목) 53-46	23일(일) 59-41
21일(금) 61-45	24일(월) 62-4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0년 부터 지금까지)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맥클린 한국학교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 성료

김치의 날에김장문화 소개 한인 이민 초기 역사 강의도

버지니아 맥클린 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한국대표 발효 식품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들의 김치 만들기 체험과 학생 대상 김치 역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버지니아 김치의 날을 맞아 열리는 행사는 김치 만들기 체험을 통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

산으로 등재된 한국 고유의 김장문화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 진행은 로사 박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회장이 맡아 김치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종류를 설명했고, 이어 아이

린 신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어머니인 신지민 씨가 김치 담그기 시연을 해 시선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배추김치, 오이소박이김

치, 나박김치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며

김치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못지 않게 아버지들도

직접 참여해 포기김치에 양념을 바

꾸리면서 ‘김치 사랑’에 품 빼지기도 했다.

이은애 교장은 “행사를 통해 참가자

들이 김치의 맛뿐만 아니라 ‘함께 담그는 즐거움’을 느끼며 한국의 김장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치 행사에 이어 학생들은 이은애 교장의 이민 초기 한인들의 도전과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하와이 연가’를 관람했다.

이 영상은 초기 이민자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학생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한 기자



맥클린 한국학교 학생들이 김치 체험 행사에 이어 역사 강의를 듣고 있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정기 이사회 개최

‘교사의 밤’ 후원 논의 재정 확보 위해 노력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이사회(이사장 한연성)는 지난 15일 애나데일 한인타운 소재 한강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과 협의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및 정광미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희 이사의 참석자 확인 및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한연성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가 지역 한국어 교육의 중심축으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사들의 지속적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 이사들의 소개가 이루어지며 회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광미 협회장은 올해 협의회가 추진·전개해 온 행사 보고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성과와 다가오는 교사의 밤 행사에 이사회의 후원 방향을 설명했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이사회가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회의 안건에서는 이경희 총무 이사가 2025년 사업 및 주요 결정사항 보고, 성혜숙 재무이사가 재정 현황 및 회계를 보고하고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내달 열리는 ‘교사의 밤’ 후원과 관련해서는 행사 준비위원장 밭굴을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동시에 ‘땅콩 판매’ 수익금을 행사 후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이사회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졌으며, 지역 차세대 한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을 위한 지속적 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이사회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협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큰 힘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성한 기자



한국 국경일 기념 초청 행사 열려 주미한국개사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소재 ‘앤드류 멜론 오디토리엄’에서 ‘2025년 대한민국 국경일과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워싱턴지역 한인단체 장과 각국의 외교관, 그리고 미주 한인 교포 등 1000여명이 모여 개천절과 국군의 날 등 한국의 국경일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숙명여대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12월 6일, 타이슨스 타워 클럽

연말을 맞아 숙명여자대학교 워싱턴동문회(회장 김영란) 선우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숙명여자대학교 워싱턴동문회는 오는 12월 6일(토) 정오(낮 12시)에 버지니아 소재 타이슨스 타워 클럽(Tysons Tower Club, 8000 Towers Crescent Dr., Ste 1700, Vienna, VA 22182)

홍알벗 기자

1985
오직 옴니!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보험에 관한 옳은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나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나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GOLFZON

“손님들의 피드백을 보면 골프존 제품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실내 골프 기계 중 실제 골프장과 가장 유사한 골프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창업자 Justin Doh, 라스베이거스 -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골프 브랜드
이제 미국에서도 만나보시죠.
압도적인 기술력, 골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품 및 사업 문의
Tel (한국어 전용): 571-388-1877
Email: salesusa@golfzon.com



지난 14일 LA 한인타운 후버와 3가 주택가에서 비바람에 고목이 쓰러지며 주차된 픽업트럭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상진 기자

남가주 ‘폭풍우 릴레이’ 곳곳서 추가 피해 우려

**18일까지 전역에 1인치 강우
오는 20·21일 세번째 예보돼
가급적 이동 자제·주의 당부**

지난 주말에 이어 남가주 지역에 다시 한번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기상청과 로컬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내일까지 두 번째 폭풍우가 남가주 지역별로 0.75~1인치 정도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기상청 기상학자 로즈 손펠드는 “지난 16일 오전 해안에서 발생한 폭풍우가 이동하며 오늘 오전 LA 메트로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폭풍우는 오늘 밤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1인치가량의 강우를 기록한 후 내일(18일)은 소나기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오는 20일과 21일에도 한 차례 더 폭우가 예상되나 예상 강우량은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주말까지 내린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과 산사태가 보고된 남가주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립기상청이 지난 16일 오전에 발표한 남가주 주요 지역 강수 집계에 따르면 LA카운티 31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22인치로 LA다운타운 2.51인치를 나타냈다.

오렌지카운티는 23개 지역 평균 강수량이 2.76인치로 어바인 2.64인치, 풀러턴 3.53인치를 기록했다.

특히 곳곳에서 지난 15일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옥스나드는 3.18인치로 지난 1934년 기록(1.80인치)을, LA 다운타운도 1.65인치로 지난 1952년 기록(1.43인치)을 각각 경신했다.

한편, 지난 3일간의 폭우로 곳곳에서 각종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경 빅서 해안에서 5세 소녀가 15~20피트 높이의 파도에 휩쓸리자 소녀의 아버지가 구조를 위해 뛰어 들었다 사망하고 소녀는 실종됐다.

이날 오후 새크라멘토 인근 서터카

운티에서는 침수된 다리를 건너던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리며 71세 남성이 사망했다.

남가주에서 인명 피해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지난 16일 부에나파크에서 흥수에 휩쓸려 수로에 빠진 한 남성이 소방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5일에는 벤투라 101번 프리웨이에서 고장 나 폭우에 잠긴 차량을 후방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LA 곳곳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최소 58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으며 710번 프리웨이 롱비치 불러바드 진입로 중 하나가 3피트 깊이의 물에 잠겼다.

이외에도 샌타클라리타, 칼라비아스, 그레이프바인, 사우전옥스, 말리부 등지에서도 낙석, 침수,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LA카운티 여러 지역에 발령됐던 돌발 흥수 경보와 대피령이 대부분 해제됐으나 국립기상청은 불필요한 이동 피하고 절대로 침수 지역에서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한인 영주권자 4개월만에 석방

7월 공항서 석연찮게 억류

“**구금 정당화 문서 제출 못해**”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에서 석연찮게 억류된 40대 한인 과학자 김태홍(영주권자·사진)씨가 구금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벌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A&M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불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35년 넘게 국내에서 살았으며,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학교는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당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두 통지가 발령된다”고 설명했다.

미교협은 김씨가 지난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 구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으며, 국토안보부(DHS)가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DHS가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E는 추가로 4일 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가주, 억만장자 ‘5% 추가 과세’

〈순자산 10억불 이상〉

메디캘 삭감 보전 목적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저소득층 의료보험

인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 삭감된 예산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HW)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은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

SEIU-UTHW는 해당 법안이 시행

되면 약 10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 운동은 오는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곳이다.

자산 관리업체인 알트라타의 자료에 보면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는 225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WSJ은 억만장자 과세안이 현실화하면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실현 가능성성을 낮게 전망했다.

NONGSHIM EXCLUSIVE PARTNERSHIP

무인라면카페 사업설명회

소자본 창업 기회! 단 \$5,000 투자로 시작하세요! 12월 6일 (토) | Chantilly, VA



제품 체험

TRZ 조리기 & 무인카페(자동판매기) 모델 시연
투자비 & ROI 안내
대학가·근처 소규모 창업 가능

투자 안내

\$25,000 사업비 → 농심 지원 통해 \$5,000 투자만으로 가능
• 농심 지원 \$10,000
• TTO 무상임대 모델 \$10,000
무상임대 모델: 사업 중단 시 본사로 자판기 반품 가능

특별 혜택

방문 시 라면조리기 1대 100% 증정 (\$795 Value)



지금 바로 신청하고 설명회에 참여하세요!

예약 / 문의



문의번호 1-800-742-7931 thetouchon.com

'시민권자도 추방되나' 불안 확산

트럼프 이민정책 강화 여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안전하다'는 기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분쟁지역 출신 난민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일부 귀화 시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여권을 소지하는 등 단속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귀화 시민은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 자연



각종 절차 강화 등을 우려해 여행을 자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범죄 연루 혹은 안보 우려가 있는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면서 귀화자들은 제도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

려하고 있다. 불체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다카(DACA) 신분으로 성장해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신디 나바 뉴메시코 상원의원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분으로 귀화한 다우다 세세이도 '충성서약을 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믿었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민권 박탈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판례와 역사적 배경도 최근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790년 품행이 훌륭한 백인 자유인(free white person)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한 귀화법은 인종·출신지에 따라 귀화를 제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23년 연방 대법원은 인도 출신 귀화자가 백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취소한 바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낙희 기자

미국,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 면제' 폐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에 한국에 절반 대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장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 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 3곳 2만7600불 벌금

현대·LG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한국인 체포사태 벌어진 장소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 761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운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 650달러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달러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리벌에 위치한 현대차-LG 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를 부과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 엔솔 배터리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태가 대다수 구금 근로자들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정시내 기자

미·EU 무역갈등 다시 불씨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이다.



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무역은 여전히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화약고"라며 EU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어 대표는 "EU는 많은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수출을 막고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만 미국은 매우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해 왔다"며 "상당히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아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맺은 무역 합의를 언급한 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시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0%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EU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미국의 공산품과 돼지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사이에선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 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선 'EU가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유럽의회가 아직 미국과 EU의 합의에 대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합의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유럽의회의 비준 시점은 빨라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U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조만간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조속한 합의의 실현을 촉구할 예정이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응용자와의 협업
달인과 함께하는
응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조 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Jiho Choi, M.D.
(NPI: 1225149859)

www.immediatehousecalls.com

미국 여행 방문 시
미 전역 무비자 & 무보험 환자 환영
전화 치료와 처방 (\$110+)

Phone / Text / Photo / Kakao Talk
301-338-8119

미국 여행 방문 시
미 전역 무비자 & 무보험 환자 환영
전화 치료와 처방 (\$110+)

Phone / Text / Photo / Kakao Talk
301-338-8119

영국 노동당도 이민정책 우향우

5년→20년 지나야 영주권 신청 가능

반인민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 받은 지 20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난민 신청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인민 정책을 내세운 영국 개혁당에 지지율이 뒤지자 이민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이 영국 전역에서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난민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준 5년에서 2년 6개월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도 기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았더라도 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송환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거 생활비에 대한 의무 지원 조항도 폐지한다. 난민의 영구 정착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노동당 정부는 17일 이같은 난민 제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마흐무드 장관도 부모가 파키스탄에서 이주해온 이민 2세다. 그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해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난민 신청자는 더 일찍 영구 정착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최근 1년 간 난민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11만 1084명으로 사



지난 9월 13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 반인민 집회인 '영국 통합' 시위가 열리고 있다.

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청자의 절반이 소형 선박(39%, 4만 3600명)이나 컨테이너 또는 트럭(11%, 1만 2100명)을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난민 신청은 감소했지만 영국에서는 증가했다는 것이 영국 정부 설명이다.

개편안은 유럽에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덴마크의 이민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덴마크는 난민들에게 2년짜리 임시 거주 허가를 내주지만, 난민 자격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정규직에 종사해야 하고 덴마크 어도 능통해야 한다. 규정 강화 이후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 출신 이민자 유입은 대폭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우익 포퓰리즘 개혁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반인민 정서를 등에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중순 영국 런던 도심에서 15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반인민 집회가 개최된 이후 나이절 패러지 개혁당 대표는 영주권 제도 폐지, 이민자 복지 혜택 중단 등을 공언했다. 영국개혁당은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노동당을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패러지 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노동당 소속) 내무장관이 개혁당 지지자 같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워런회 기자

방글라데시 전 총리 ‘시위 유혈진압 지시’ 혐의로 사형 선고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해 인도로 도피한 세이크 하시나(사진)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은 이날 하시나 전 총리에 대한 결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작, 잔혹행위 방지 등 3 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에 반대하는 대학

생 시위를 무력 진압하도록 지시,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유혈 진압에 도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달아났으며, 이후 집단살해 방지 실태·조장 등 5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 작년 7~8월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상용 무력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시나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도에 계속 머물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를 자국으로 송환하라고 인도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작년에 송환을 공식 요청했지만 인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 하시나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판결”이라며 “내게 내려진 판결은 민주적 권한이 없는 비선출 정부가 만들고 주재하는 조작된 재판소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시나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중국 관영매체 “오키나와, 일본 아니다”

17일 중국 외교부가 일본과 정상급 회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일본 중국대사를 소환해 공식 외교 채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 기간) 리창 총리가 일본 지도자와 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뿌리부터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날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차이나 테일러는 지난 15일 “류큐(琉球·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일본이 아니다”라는 오키나와의 학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문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지

키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하려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다카이치의 과격한 입장에 대부분의 오키나와 주민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독도 주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일본에 한국 정부가 항의를 표현한 데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질의에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과 갈등을 빚는 교집합을 찾아 우회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정부는 중국에 정상적인 인적교류를 촉구하면서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 정부의 방일 자체)는 정상간 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이라는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협의를 위해 이날 베이징을 방문했다.

베이징·도쿄=신경진·김현예 특파원

에티오피아서 3명 숨진 ‘이 감염병’

8~9일 내 사망률 80%

에티오피아에서 마르부르크병으로 3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부가 17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3명이 사망했다”며 “추가로 다른 3명의 사망자도 이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129명을 격리해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서남쪽으로 약 430km 떨어진 진카시에서 마르부르크병 의심 사례가 보고된 이후 최소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최초의 발병 사례다. 지난 1월 탄자니아에서 발병해 10명이 사망한 뒤 3월 종식이 선언된 바 있다. 르완다에서는 지난해 9월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래 같은 해 11월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확진자 66명 중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마르부르크병은 1967년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집단 발생해 마르부르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적으로 21일의 잠복기를 갖는 뒤 심한 두통과 고열, 출혈,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증상이 나타난 후 8~9일 이내 사망률이 80% 이상에 달한다.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 사이에서는 체액 접촉이나 원숭이 등 감염된 야생 동물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된다.

현예슬 기자



지난 2014년 10월 8일 케냐 나이로비의 케냐타 국립병원에서 의료진이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3명이 사망했다”며 “추가로 다른 3명의 사망자도 이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Connie A. Yoon
법무사

형사법, 무엇이든 들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퍼펙트 커뮤니케이션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데이빗 막스 변호사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M 데이빗 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203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2019



2019

www.davidmarksllc.com

www.davidmarksllc.com



Member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 10월 15일 ~ 12월 7일

생명보험, 장기 간호보험, 자동차, 주택, 빌딩, 사업체보험도 비교해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무료 상담

애넌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GRAND
OPENING



오 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2026년 달력을
나눠 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27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216-1553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 마을 Health Town

애년데일 703-354-1515
2층소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THANKSGIVING 11월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튠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튠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튠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두통, 어지러움, 체력저하, 무력감

광동 일품 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480 \$250.00 대박 SALE 5개짜리 FREE 증정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메디트리 콜렌플러스 코팅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100% 유기농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당케어골드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임 흥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징코크린 정 기침성 뇌기능 장애 및 멀초 흉부순환장애 치료제
밀초 할액수화/우울감
기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 만성피로
20% SALE \$159.99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HONEYWAY 그린 프로폴리스
100% PURE 3+1 스페셜 1oz \$45 4oz \$125
순도 100% 천연 활생 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프리미엄 브라질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전신
- 기관지 노폐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과 밤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술취성 침출증 있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파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영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영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사람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법 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빼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일에 글루타치온 387mg 함량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뻑뻑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肯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카니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철액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진료 과목**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肯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K반도체도 K조선도 5년뒤 중국에 뒤진다

한경협, 10대 수출업종 기업 설문
주력업종 5개 경쟁력 이미 뒤처져
남은 바이오·석화·IT도 5년내 역전
“생존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필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K반도체’는 언제까지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중국 ‘레드 메모리’ 3사로 불리는 SMIC(中芯國際)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두 회사를 턱밀까지 위협하고 있어서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로 ‘중국의 TSMC’로 불리는 SMIC는 미국의 제재에도 화웨이와 협업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SMIC는 올해 3분기

(7~9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8%)를 바짝 뒤쫓았다.

중국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대표하는 YMTC는 올해 상반기부터 270단 수준의 3D 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321단), 삼성전자(286단)와 기술 격차를 좁힌 것은 물론, 내년 하반기 300단을 건너뛰고 400단 낸드로 진행할 전망이다. 내년 초를 목표로 상장도 준비 중이다.

D램 반도체는 CXMT가 전 세대 D램(DDR4)을 경쟁사 대비 약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최근엔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기업 스스로 5년 이내에 레드 메모리가 K메모리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현재 경쟁력 우위에 있는 조선·정보기술(IT)·석유화학·바이오 등 ‘수출 험마’ 10대 업종이 5년 뒤 모두 역전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 업종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년을 기점으로 모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일반기계·선박·2차전지·석유화학(석유제품)·바이오헬스 등 10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 경

쟁력을 100으로 볼 때 중국은 102.2다. 미국(107.2)보다 낮지만 일본(93.5)보다 높다. 응답 기업들은 5년 뒤엔 중국 기업 경쟁력이 112.3까지 오른다고 예측했다. 미국(112.9)과 비슷한 수준이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실팀장은 “국내 기업 경쟁력은 이미 미국·중국에 뒤쳐졌는데 5년 뒤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경쟁력 100)은 10대 주력 업종 중 반도체(이하 중국 99.3), 전기전자(99), 선박(96.7), 석유화학(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에서 중국을 앞섰다. 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107.1로 치솟고 전기전자(113), 선박(106.7), 석유화학(106.2), 바이오헬스(100.4) 등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칠 전망

이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미국의 구애를 받는 조선업체 위상도 흔들린다는 의미다. 중국 1·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은 지난 9월 합병을 완료했다. 새로 태어난 회사는 자산 규모(약 82조원), 연간 영업이익(약 20조원)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의 거센 위협 속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는 수준의 국가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투자, 규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측면에서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위주로 재편하고 고급·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지도 뒤집은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전략적 중심”

〈제이비어 브런슨〉

“북·중·러에 비용 부과할 수 있어”
주한미군, 중·러 경제 가능 시사
지도엔 평택-타이베이 거리도 표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4성 장군)이 17일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경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

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르는 여러 경쟁축(multiple axes of competition)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으로 이어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 :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 공개’란 글을 올렸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부터 평양·베이징·모스크바뿐 아니라 마닐라와 타이베이까지 거리가 표기됐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 동맹은 전략적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존 전력과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변국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과 거점처럼 인식됐지만(동쪽이 위인 지도로) 관점을 바꾸면 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쪽이 위인 지도 관점에서 한·일·필리핀은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며 “이 구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동맹의 기본 임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주한미군이 공개한 지도.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었다.

[사진 주한미군]

8년 만에 재개하려던 한·일 공동 수색·구조훈련 보류

일본, 블랙이글스 급유지원 중단
한국 해군은 훈련 연기로 맞대응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일본이 중간 급유 지원을 중단하자, 이번엔 한국 해군이 이달 예정된 해상자위대 와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공동훈련은 1999년부

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을 계기로 중단됐다. 2018년 12월 한국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 위험 비행을 하며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일 군사 교류도 멈췄다.

양국 군사 협력 분위기가 마련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레이더 조사(照射) 재발 방지 합의를 하면서 군사 교류 움직임이 재개됐다.

8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한·일 공동 훈련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달 말

이다. 당초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10월 하순께 독도 상공을 통과한 한국 공군기를 분석한 결과 블랙이글스가 포함됐다며 급유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 간 첫 대면 회담 직전 이런 사실이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종리는 급유 지원 의견을 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보수 층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고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대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종리가 “한·일 정상의 리더십으로 협안을 잘 관리하자”고 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일본 측 결정에 한국도 맞대응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가 참가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한, 일·미·한의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류 중단을 외교 갈등으로 키우지 않

겠다는 취지다. 한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공동 훈련 실시 시기를 재조정 한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영토주권전시관을 추가 확장하면서 외교부의 반발을 샀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다카이치 종리는 급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하면서 정권 초기에 그런 (중단)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전략적 한·일 관계 중요성에 (양국 문제를) 비춰보면서 양쪽이 지혜를 내 좋은 흐름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박현주 기자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토허제 한달… 강남 신고가만 360여건, 노도강은 추격 매수

'거래 절벽' 예상 깐 서울 집값

12일까지 서울서 3127건 허가신청 송파 297건 1위, 노원 257건 2위 규제 피한 15억 이하 매수세 강해 마포·성동 한강벨트는 거래 줄어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4단지' 전용면적 59㎡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북구청에 토지 거래허가(토허) 신청을 했다. 박씨는 17일 "구청에 문의하니 토허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 빠른 처리가 힘들다고 하더라. 집주인이 마음을 바꿀까봐 조조하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0·15 부동산 대책 전 8억9000만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9억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거래 절벽이 나타날 거란 예상과 달리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주로 대출 규제를 피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서남권 지역에서다.

각 구청에 따르면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4일간 서울 25개 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3127건이다. 송파구에 297건의 토허 신청이 접수돼 가장



17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및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많았지만, 노원(257건)·성북(220건)·강서(207건)·구로(159건)·은평(153건)·서대문(146건)·중랑(120건)구 등이 뒤를 이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과 시장 흐름은 토허 신청 건수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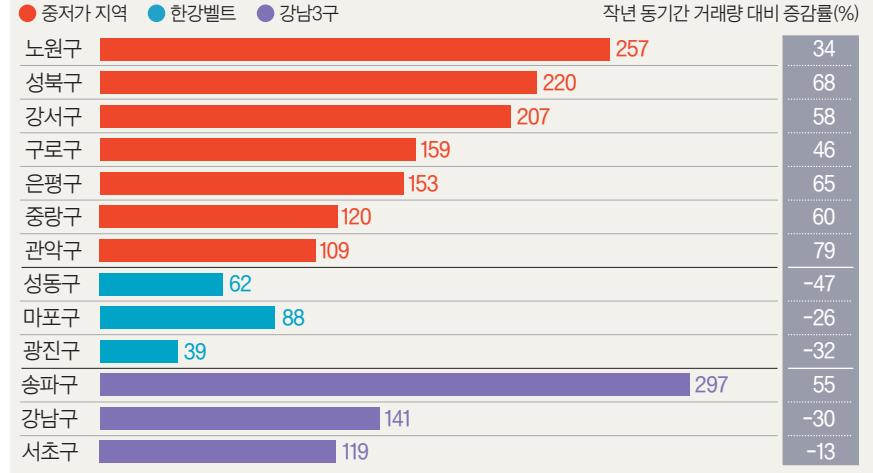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계주 공1단지 59㎡는 약 2000만원 올라 6억 원 정도에 거래된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는 젊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 대책 이후 서울 전역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3127건)는 불장이었던 대책 이전 거래량(9387건)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626건)에 비하면 16% 늘었다. 강북·서남권 지역은 작년보다 거래량이 50% 이상 늘어난 곳이 많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급자 집값은 더 오를 거란 불안감, 전세 부족 등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포모'(나만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대출이 최대한 6억원까지 나오

서울 중저가 아파트에 몰린 매수세 단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접수 건수



※2025년 10월20일~11월12일 토지거래계약 접수 건수

※2024년 10월20일~11월12일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일 기준 거래량 대비 증감률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직방

는 15억원 이하 강북·외곽 지역 아파트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현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강북·외곽 지역은 2021년 전 고점 가격을 아직 회복 못 한 곳이 많다"며 "추후 상승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마포구·성동구 등 불장이었던 '한강벨트'는 열기가 식은 모습이다. 성동구에 62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마포구 88건, 광진구 39건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했다.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 대출 규제, 매물 급감 등으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에 가장 많은 토허 신청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강남(141건)·서초(119건)구도 100건 이상의 토허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늘어난 곳은 서울을 통틀어 강남 3구가 유일하다. 직방에 따르면 송파구는 신고가 거래가 고강도 대책이 나온 후에도 187건이나 나왔다.

백민정 기자

'10·15' 뒤 오피스텔 거래 2.6배 증가 “대출규제 덜해 아파트 수요 옮겨가”

서울 10월 평균 매매가는 3억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

달 16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서울 오피스텔 거래는 76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보름(10월 1~15일)간 거래 건수(289건)의 2.6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262건에서 1640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지자 상대적

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6·27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고,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비켜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등도

없어 캡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가능하다.

매매 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10월 3억418만원으로 2023년 1월(3억423만원) 이후 가장 높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지난달 4.8%로,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

록했다.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도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면적 137㎡가 2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뛰며 신고가를 고쳐 썼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정은혜 기자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출사의, 검찰징계 추진에 반발

법무부 '검사장·평검사 강등' 압박 항소포기 반발 검사에 징계 등 검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18개 지검장을 대표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박재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노대

행에게 비공식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우려를 전달했던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당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에 대한 평검사 인사 전보 검토,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사 파면법) 제정 등 강경책을 거론하는 가운데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

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 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집단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 조치, 징계, 감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낸 18개 지검장뿐 아니라 집단반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이다. 노 전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촉구한 대검 부장단(검사장), 연구관(평검사)들도 포함된다.

검사 인사 조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는 만큼 장관 전결로도 가능하다. 검찰징계법 검사 직급은 검찰

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는 '강등'이 아니라 '보직 이동'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한다. 다만 인사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위법 행위가 명백히 근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법무부가 평검사·중간간부·고위간부 인사를 나눠서 해왔고, 승진 후 통상적으로 이를 역행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점 등에서 검찰 내부에서 보직 이동은 징계로 인식된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반발이 공무원 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교통사고,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렉트 카디널리 치료기)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주택 매매 및 편도

1101 K St., Suite 1000, McLean, VA COMING SOON	\$625,000	1층, 2층+2, Main Level 끝길 좋은 위치, 1~2층 대고, Garage 5개 으로 여전히 높아지기 안전하고 위치 View. 그늘에 단지에 위치한 1101 K St., 100 ~ 400평면적 도면이 있습니다. 100 ~ 400평면적 도면이 있습니다.
1477 Herold, McLean, VA UNDER CONTRACT	\$1.3M	목수 오피스텔 세팅 좋은 조건으로 오피스텔 마련해 줄은 후 시장 판매 예상. 1477 Herold 세팅으로 예상.
6501 Dixie St., McLean, VA SALE	\$2,85M	Focal Point Homes 엘리자 촌은 산수 풍수 좋고 주변의 사설과 청 계곡이 있는 풍수 좋은 위치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22층, 23층, 24층,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 30층,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 36층, 37층, 38층, 39층, 40층, 41층, 42층, 43층, 44층, 45층, 46층, 47층, 48층, 49층, 50층, 51층, 52층, 53층, 54층, 55층, 56층, 57층, 58층, 59층, 60층, 61층, 62층, 63층, 64층, 65층, 66층, 67층, 68층, 69층, 70층, 71층, 72층, 73층, 74층, 75층, 76층, 77층, 78층, 79층, 80층, 81층, 82층, 83층, 84층, 85층, 86층, 87층, 88층, 89층, 90층, 91층, 92층, 93층, 94층, 95층, 96층, 97층, 98층, 99층, 100층, 101층, 102층, 103층, 104층, 105층, 106층, 107층, 108층, 109층, 110층, 111층, 112층, 113층, 114층, 115층, 116층, 117층, 118층, 119층, 120층, 121층, 122층, 123층, 124층, 125층, 126층, 127층, 128층, 129층, 130층, 131층, 132층, 133층, 134층, 135층, 136층, 137층, 138층, 139층, 140층, 141층, 142층, 143층, 144층, 145층, 146층, 147층, 148층, 149층, 150층, 151층, 152층, 153층, 154층, 155층, 156층, 157층, 158층, 159층, 160층, 161층, 162층, 163층, 164층, 165층, 166층, 167층, 168층, 169층, 170층, 171층, 172층, 173층, 174층, 175층, 176층, 177층, 178층, 179층, 180층, 181층, 182층, 183층, 184층, 185층, 186층, 187층, 188층, 189층, 190층, 191층, 192층, 193층, 194층, 195층, 196층, 197층, 198층, 199층, 200층, 201층, 202층, 203층, 204층, 205층, 206층, 207층, 208층, 209층, 210층, 211층, 212층, 213층, 214층, 215층, 216층, 217층, 218층, 219층, 220층, 221층, 222층, 223층, 224층, 225층, 226층, 227층, 228층, 229층, 230층, 231층, 232층, 233층, 234층, 235층, 236층, 237층, 238층, 239층, 240층, 241층, 242층, 243층, 244층, 245층, 246층, 247층, 248층, 249층, 250층, 251층, 252층, 253층, 254층, 255층, 256층, 257층, 258층, 259층, 260층, 261층, 262층, 263층, 264층, 265층, 266층, 267층, 268층, 269층, 270층, 271층, 272층, 273층, 274층, 275층, 276층, 277층, 278층, 279층, 280층, 281층, 282층, 283층, 284층, 285층, 286층, 287층, 28

팩트시트 끝난 이 대통령, UAE '방산 세일즈' 나섰다

7박10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UAE는 중동 유일 '특별동반자' 국가
정상회담서 방산·AIMOU 체결 예정
전투기 4대 호위, 국빈 방문 예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마무리 이후 첫 해외 외교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등 4개국을 방문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했고, 아부다비 주요 도로엔 태극기와 자국 국기를 나란히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UAE 초대 대통령인 고(故) 자이드 빈 솔탄의 묘소 방문을 시작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8일엔 모하메드 빈 자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7일 UAE 상공에 진입하자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UAE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한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아들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취임 후 처음 (UAE를) 방문하시는 것인 만큼 각별하게 모시겠다"고 했다.

UAE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를 열고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BRT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 등에서도

한·UAE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 공식 방문(19~21일)을 거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21~23일)하고, 귀국에 앞서 튀르키예 국빈 방문(24~25일)을 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회복과 성장' 등의 비전을 이번 G20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4개국 방문은 국의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부다비=윤성민 기자, 서울=오현석 기자

노총 사무실 보증금·수리비 110억원까지... '코드예산' 밀어붙인 여당

당초 정부 원안엔 없었던 예산
양대노총 예산안 환노위 통과
파방위선 TBS 예산 74억 처리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뗀 17일 '코드 예산'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등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이 포함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각각 78억원(민주노총)과 51억원(한국노총) 증액을 요청하자 정부·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쪽지 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고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해 달라"던 양대

노총 위원장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셈이다. 정부가 노총의 사무실 임차와 시설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2005년(민주노총)과 2019년(한국노총) 이후 처음이다.

우 의원은 "경제적으로 훨씬 취약한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 지원은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층이 전·월세난인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보증금에 수십억원을 배정하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반면에 한 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일단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교통방송 신규 예산 74억8000만원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 신설에 52억8000만원, 교통FM 제작 지원에 22억원을 신규로 배정됐다. 이 예산도 처음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편성됐다고 한다. TBS는 윤석열 정부 시절 편향성 논

란을 겪은 김어준씨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 논란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지원이 끊겼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아리랑 TV·국악방송 지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되겠느냐"(이정현 의원)고 했다.

박준규·이찬규 기자

경찰, 학교앞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통고… "학습권 침해"

경찰이 강경 우익단체가 서울 성동구 한고등학교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금지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20일 오후 한고교 앞에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성동구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초

구 집회의 경우 제한 통고 처분이 내려져 있다.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열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 단체 측은 예고된 집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요일인 22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일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수요시위가 열릴 때마다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해왔다.



평화의 소녀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Emergency Veneer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메기 키우고 수산물 파는 2030… 귀어학교 덕에 어촌 활기

경기·인천 귀어학교 296명 수료
어업 지식·기술 교육, 숙식 등 무료
“어촌·예비 귀어인 이어주는 역할”

경찰 공무원을 육성하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유다영(22·여)씨는 경기 귀어학교 2024-1기(2024년 1기) 최연소 수료자다. 지난해 3월 귀어학교에 입학해 5주 동안 양식업과 수산물 유통업, 어선 어업 등을 체험하고 난 뒤 귀어·귀촌할 뜻을 굳혔다. 유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민물 메기,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화성 장안면 소재 ‘니스민물’ 사장이 됐다. ‘행복수산’이던 상호를 청년 사업장에 걸맞게 새로 단장하고, 양식장 옆에선 애견카페도 운영한다. 유씨는 “처음엔 아버지를 돋기 위해 시작했는데, 귀어학교 수료 후 서류 작업, 생물 손질, 온라인 판매까지 도맡아 사장이 됐다”고 말했다.

17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

체 단위로 귀어귀촌지원센터 17곳, 귀어학교 8곳(경기·인천·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수도권 소재 경기, 인천 귀어학교는 각각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개교한 이래 현재까지 총 296명(경기 154명, 인천 1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귀어귀촌지원센터는 귀어 희망인들의 준비 과정 전반을 돋는 기관이고, 귀어학교는 예비 귀어인에게 어업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곳이다. 귀어학교 1곳당 책정된 사업비는 연간 2억원(전액 국비)으로 교육생 전원에서 숙식 및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료생은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자금 7500만원 이내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귀어학교에 어촌 소멸 위기를 타개 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어촌 소멸 위기는 지역 인구 감소를 넘어 해양수산업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가 인구



지난 5월 인천 귀어학교 5기생들이 어장에서 어업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구성원 수)는 2014년 14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8만 4000여명으로 10년 만에 41.5% 감소했고, 고령화는 32.2%에서 50.9%로 심해졌다.

귀어학교 사업을 담당하는 안성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주무관은 “어촌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어촌을 지탱하는 신규 어업인을 양성하자는 게 귀어학

교 운영 취지”라고 했다. 안태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무관도 “귀어를 희망하는 개인이 혼자 실습이나 체험을 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귀어학교는 어촌과 예비귀어인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기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화성 백미리에 정착한 이윤석(33)씨는 “경기 귀어학교를 수료하고 남해안에서부터 서해안 어촌 마을들을 경험해보고 귀어를 결정하는 게 비범적하다”고 조언했다.

손성배 기자

정했다”며 “귀어학교는 어촌과 바다, 그 곁에서의 생활을 알려 준 진짜 학교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귀어학교 입학과 5월 귀어 전까지 11년간 서울 목동과 대치동 등지에서 입시생들을 가르친 국어 강사였다. 치열하게 입시 강사로 일하며 고요한 바다 낚시를 취미로 가졌던 그는 귀어를 통해 은퇴 없는 새 직장인 바다 곁에 터를 잡고 상호를 ‘바다살림’으로 정했다. 이씨는 “인공지능(AI)이 날로 발달하는 이 시대에 학원 강사 직업이 존속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유통 활로를 넓여 전국 각지에 판매하는 유통 특화 어업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달상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바다, 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귀어학교는 열려 있지만, 누구나 귀어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를 통해 미리 어촌 마을을 경험해보고 귀어를 결정하는 게 비범적하다”고 조언했다.

손성배 기자

한옥 처마 형상화 지붕에 입체 보행로까지… 남대문시장 달라진다

‘남대문시장 혁신 프로젝트’ 발표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
600년 된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세계적 문화 유산(글로벌 해리티지)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남대문시장은 2만여개의 도소매 점포가 영업 중인 국내 최대(最大) 규모 시장이다. 하지만 유통·소비 유행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편의시설·공공부지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지

역 상권 특성을 살려 100년 후에도 찾고 싶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남대문시장 중심 가로에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아케이드(양쪽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통로)를 설치한다. 한옥 처마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채광·환기·소음 등을 고려한 막구조(membrane) 지붕이다.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도 연내 착공한다. 낡은 가로환경과 복잡한 안내체계를 정비해 보행·쇼핑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행 편의도 개선한다. 남대문시장과 송례문 사이 소월로 조립에는 2층



서울시 중구 남대문 디자인 아케이드 입구. 한옥 처마를 형상화했다. [사진 서울시]

구조의 ‘송례문 조망길’을 조성한다. 보도폭을 넓히고 2층 구조로 입체 보행로를 조성한다. 시장을 방문한 관광

객은 입체 보행로에서 국보 송례문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산책로 뒤로 이어지는 소파로는 가로정원, 디자인 시설 등을 활용해 휴식·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뀐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남산과 백범광장, 한양도성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

젝트를 통해 남대문시장을 ‘단순 상거래 공간’이 아닌 문화·관광·생활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상인회·지역주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남대문시장 디자인 아케이드 준공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은 “남대문시장 혁신 프로젝트는 상인·공공의 협력이 만든 결과물”이라며 “남대문시장을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철 기자

한국, COP30서 ‘탈석탄동맹’ 가입

한국이 미국과 영국 등 60여개국을 비롯해 18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가입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대구시,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미 PPCA에 가입한 곳들도 있다.

PPCA와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 중인 한국 정부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PPCA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PPCA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한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은(unabated)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

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파리 협정을 이행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늦어도 2030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PPCA의 분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은 이번에 PPCA를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는 예정대로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남은 20여기에 대해서는 공론을 거쳐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고려해 결정하되,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PCA는 “어떤 노동자와 공동체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탈석탄을 가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돋겼다”고 밝혔다. COP30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탈석탄은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PPCA 가입을 통해 석탄 중심 전력 체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세계 최대 기후 무대에서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탈석탄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 함께 바레인도 PPCA에 가입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클립턴 싱글홈

\$1.5M

센터빌 타운홈

방5/화4.5/차고3, 1,05 에어컨 새 지붕, 새 HVAC
\$60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2/화2.5/ 차고1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아함, 교통편리
\$3,000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700,000 방3, 화2.2, 차고2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JENNIE DOMINGO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 Chris Shin | Robert Harris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01.666.6666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말 바루기

‘있던’ 이야, ‘있었던’ 이야?

후배가 ‘있었던’을 ‘있던’으로 고친다. 외부 필자가 “내가 앉아 있었던 곳이다”라고 썼는데, “내가 앉아 있던 곳이다”로 바꾸었다. “그걸 왜 굳이?” “있었던은 잘못 아니에요?” “왜?” “있던이 이미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또 과거를 나타내는 ‘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 중복이란 거야?”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그럼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도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적절한 거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 말할 때는 ‘거기 있었던 이유’라고 하게 되네요. 하하.” “뭔가 조금 다른 거지. ‘있던’이 과거에 지속 중이던 상태를 지금 단순히 회상하는 거라면 ‘있었던’은 과거에 이미 완료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야. ‘있었던’이라고 하면 과거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비교해 봐. 어때?” “듣고 보니 조금 달라 보이네요. ‘다녔던’은 행동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느낌을 선명하게 주네요. ‘다닌’은 뒤랄까 진잔해 보이고요.” 반복적으로 자주 간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자주 가던’이라고 할 것이고, 이제는 안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자주 갔던’이라고 하겠지.” “단”과 “였던”은 제법 차이가 난다. “단”이 단순 회상이라면 “있었던”은 완전히 완결됐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보쌈은 ‘복(福)을 짠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삶은 데지고기를 얇게 썰어 김치나 배춧잎에 싸 먹던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김장이 끝난 뒤 돼지를 삶아 갓 담근 김치와 함께 이웃과 나누던 풍습, 그넉넉한 나눔의 음식이 오늘날 보쌈의 원형이다.

이처럼 보쌈은 본래 나눔과 풍요의 상징이다. LA 한인타운에서 보쌈이라는 음식이 갖는 의미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고된 이민 생활의 시름을 달래고, 지인들과 정을 나누는 자리 중심에는 으레 푸짐한 보쌈 한 접시가 있었다.

타운 보쌈의 역사를 논할 때 ‘고바우’를 빼놓을 수 없다. 베몬트 길로 이전하기 전, 베벌리 길 시절의 고바우는 소문난 막걸릿집이었다. 입구 오픈 키친에서 아주머니들이 직접 구워주던 해물파전과 보쌈, 그리고 동동주는 많은 이에게 타운의 정서를 상징하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시절 고바우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타운의 저녁’을 함께 나누던 공간이었다.

‘이모네’의 보쌈은 술꾼들 사이에서 ‘소주 한 잔 생각나는 집’으로 통한다. 특히 굴보쌈은 입소문이 자자하다. 저녁 무렵이면 거의 모든 테이블에 보쌈 한 접시와 소주잔이 빼지지 않는다. 음식이 술을 부르고, 술이 다시 대화를 부르는 곳이다. ‘장터보쌈’은 보쌈·족발·순대를 기본으로, 불고기·비빔밥·김치찌개·곱창볶음·감자탕까지 아우른다. 메뉴는 다양하지만, 보쌈과 족발, 순대의

복을 감싸안은 맛, 보쌈



라이언 오
CBC 월서프로페티
대표

맛은 여전히 수준급이다. 한식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집이지만, 그중에서도 보쌈은 이 식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메뉴다.

‘육대장’의 런치 보쌈은 간결한 구성이 매력이다. 점심시간에 육개장과 함께 보쌈 한 접시를 나누어 먹으면, 적당한 양에 깔끔한 맛이 더해져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한편, 보쌈과 폐려야 떨 수 없는 족발 전문점들의 흥망성쇠는 타운 요식업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한때 웨스턴길의 ‘미스터 보쌈’은 신세대 보쌈집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십수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 ‘불불이 족발’이 들어섰다가, 다시 ‘더원족발’로 상호를 바꿔 재오픈했다. 사실상 같은 주인이다. 불불이 족발은 한때 동양선교교회 길 건너편, ‘와싸다’ 옆에 있던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에 지금은 ‘핑크피그’가 새로 문을 열었다. 족발 전문점이지만, 특히 처음 맛본 ‘족발튀김’이 특별히 인상적이다. 족발의 부드러움에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 이색적인 별미로 다가온다.

오랫동안 족발의 대명사로 불리던 ‘장충족발’도 빼놓을 수 없다. 웨스턴과 5가에 있던 본점은 사라졌지만, 올림픽 길의 지점은 여전히 진재하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이름답게 ‘전통 족발’의 정석을 고수하고 있다.

8가 길 옛 진흥각 자리에 들어선 ‘청춘족발’도 요즘 인기다. 족발뿐 아니라 순대볶음, 해물파전, 데자국밥 등 다양한 메뉴를 갖췄다. 다소 소박한 분위기의 소주방이지만, 그만큼 편안하게 한잔하기 좋은 곳이다.

3가 길의 ‘LA왕발’은 가성비가 돋보인다. 9.99달러 순대국 덕분에 찾았다가, 윤기 흐르는 족발의 부드러움에 반해 단골이 되는 이들이 많다. 순대 접시도 수준급이고, 전체적으로 정성스러운 손맛이 느껴진다.

김자탕으로 유명한 ‘감자골’의 보쌈도 기대 이상이다. 육수불고기로 잘 알려진 ‘황해도식당’의 보쌈·족발무침, ‘선농단’과 ‘항아리칼국수’의 보쌈 메뉴까지 보쌈은 이제 한인타운 거의 모든 한식당의 ‘기본 안주’이자 ‘소주와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보쌈은 21세기에도 한인타운에서 저녁 문화를 상징한다. 데지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 먹으며 쌈이는 정, 소주잔을 부딪치며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그리움과 위로. 복을 싸서 나누던 풍습은, 타운의 밤을 위로하는 따뜻한 안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야침에

눈이 내린다, 리사가 웃는다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눈이 온다. 쌀인다. 밤새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낙엽은 마지막 치장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눈은 일새마다 사뿐히 내려앉는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애들은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민동산에 썰매 타러 간다. 산다할 아버지가 타는 바퀴 달린 멋진 썰매(Sleigh)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슬레드(Sled)를 매고 신나게 미끄럼을 탄다.

아이 셋이 각자 슬레드를 들고 가면 할머니는 놀칠세라 대형 쓰레기통 뚜껑에 몸을 싣고 아래로 질주한다. 내일은 리사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가슴이 내려앉아도 울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 편지에서 리사가 부탁한 것처럼 행복해지기로 한다. 이렇듯 이런 계절에 눈이 내리는 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땅에 묻고 새로 시작하라는 소망일 것이다.

그래도 잊지 말라고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 두었구나. 손자들이 내게 보낸 카드를 재활용해 카드 앞장에 ‘Kee hee, Thank you! Save my life’라고 적고, 카드 안쪽에는 원하는 문장(You’ve

always given me freedom to explore my dreams, every step of the way. Thank you for all you are to me)에 동그라미 쳐서 부엌 서랍 속에 김취 두었구나. 잠시 떠나있을 뿐이라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리사는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 심장수술 받고 기적처럼 살아나 주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착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않고 인내심이 강하며 유머감각이 뛰어났다. 티나와 크리스는 리사를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우리 애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은 할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리사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가슴에 담을 수 없어 유해를 뒷마당에 묻었다. 리사 방 침실과 연못이 보이고, 코스모스 피는 곳에 ‘Lisa Garden’을 만들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엄마를 돌보느냐’고 걱정하던 착한 딸! 수간호사는 ‘엄마 챙겨줄 사람 많으니 걱정말고 떠나도 된다’라고 리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안하면 영원히 못하니까 하고싶은 말 모두 하라고도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육체는 인식을 못 해도 맡은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딸 티나가 리사의 오른쪽을, 내가 왼쪽을 껴안고 의식이 불투명해질 때까지 수없이 ‘사랑한다. 아무 걱정 말고 잘 가라’고 속삭였다. 자식에게 “이제 떠나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말이 있을까?

숨을 멈추기 전 리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 신호였다. 계절은 하염없이 바뀌고 언땅에 꽂은 피고지고, 장편소설처럼 사는 게 힘들어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잊힌 것들 속에 잊히지 않는 것들은 화석으로 남는다.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70,000	방4, 화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3.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Pending	1. Bristow 55+single \$750,000 방4, 화3.5 치고2 2.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액스/RT95, RT1, RC34, 디씨풀그린 펄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문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박 12일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4박 5일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5박 6일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490+항공
7박 8일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3790+항공
12박 13일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0+항공
16박 17일		
02/01~02/11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10박 11일		
02/02~02/06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4박 5일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기려진 밸코니)
8박 9일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15박 16일		
02/23~03/05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10박 11일		
02/25~03/03	페루 일주	\$3090+항공
6박 7일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9박 10일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690+항공
12박 13일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290+항공
7박 8일		
03/22~03/28	페루 일주	\$3090+항공
6박 7일		
03/16~03/26	프랑스 일주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4290+항공(동반자 \$2150+항공)
10박 11일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10박 11일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박 11일		
04/29~05/12	동유럽&크로아티아&돌로미티	\$4590+항공
13박 14일		
04/29~05/06	정통 동유럽	\$2990+항공
7박 8일		
05/05~05/12	크로아티아&돌로미티	\$2990+항공
7박 8일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10박 11일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10박 11일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3590+항공
10박 11일		
05/19~05/29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10박 11일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3박 4일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8박 9일		
06/10~06/20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박 11일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10박 11일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11박 12일		
06/27~07/10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13박 14일		
06/30~07/10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10박 11일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룩키	\$1690+항공
5박 6일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3박 4일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590+항공
10박 11일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8박 9일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5990+항공
13박 14일		
08/04~08/14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10박 11일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룩키	\$1690+항공
5박 6일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6박 7일		

**업그레이드 된
호텔·식사·샵을 함께**

이태리 일주

로마의 고대 유적부터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운하까지
이태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여행!

12/23~12/30 | 7박 8일 \$2,490+항공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 자이푸루, 파티푸르시크리

1/21~2/2/26 | 12박 13일 \$3,790+항공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2/2~2/6 | 4박 5일 \$1,990(항공포함)

아프리카&두바이

대자연의 위엄을 품은 아프리카와,
미래 도시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두바이

2/19~3/6 | 15박 16일 \$12,500+항공

남미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이상 품 놓치지 마세요~

3/16~3/28 | 12박 13일 \$5,6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3/16~3/23 | 7박 8일 \$3,290+항공

페루일주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3/22~3/28 | 6박 7일 \$3,090+항공

2025년 연말특선

성극 노아 +아미쉬마켓

- 2025년 마지막 공연

당일 12/4, 18 \$199

X-Mas 부쉬가든

- 빛으로 물든 부쉬가든의
마법 축제
- 석식 포함

당일 12/11, 18 \$169

스트라스버그 기차 & 롱우드 가든

당일 12/5, 19 \$189

라디오시티 라켓쇼 & 뉴욕

당일 12/17 \$199
1박 2일 12/22 \$499

예술과 낭만을 만끽하는 인생 여행

프랑스 일주

10박 11일 | 2/23~3/5, 3/16~3/26
\$4,290+항공 / 동반자 \$2,150+항공

파리를 시작으로 몽세마쉘, 생테밀리옹,
몽펠리에, 보르도, 아를, 아비뇽, 마르세이유,
엑상 프로방스, 칸느, 니스, 모나코까지

겨울골프 & 가족여행

칸쿤(4박 5일/2인이상) *All Inclusive 호텔

Breathless Cancun Golf \$2,170+항공(골프 4라운드)
Hyatt Vivid Cancun Golf \$1,550+항공(골프 4라운드)
Sandos Cancun Golf \$2,050+항공(골프 4라운드)

코스타리카(4인이상)

4박 5일 \$1,400+항공(골프 2라운드+온천)
5박 6일 \$1,540+항공(골프 3라운드+온천)

굿바이 2025 뉴욕

- 엣지 전망대
- 랙펠러 점등트리
- 코리아타운 석식 업그레이드

1박 2일 12/8, 15, 29 \$499

2026년 새해맞이

- Concord Point Light
- MD Havre de Grace에 있는 36피트 등대

당일 1/1 \$99

Together in Korea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6박 7일 **내륙**
한 \$1499+항공 / 영 \$1699+항공

3박 4일 **서남권**
한 \$829+항공 / 영 \$929+항공

4박 5일 **동해안**
한 \$989+항공 / 영 \$1119+항공

2박 3일 **제주도**
한 549+항공 / 영 \$74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한 \$1549+항공 / 영 \$187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한 \$2199+항공 / 영 \$259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3박 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3박 5일 **다낭** \$450+항공
3박 5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3박 4일 **대만** \$690+항공
3박 5일 **싱가폴** \$850+항공

일본 연합투어

3박 4일 **동경** \$114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10박 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2026년 고국여행에 일본여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1차 04/14~04/24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2차 05/11~05/21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3차 06/16~06/26 (영&한)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4차 09/15~09/25 **여행지** 5박 6일 | \$1899+항공
5차 10/13~10/23 **동경** 7차 10/27~11/06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3.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4. 최고급 오тель 숙박(오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클래드 서울/전주 안락의을 리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운셀호텔/제주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5. 업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3.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제주

TMCI Total Market Connection Institute

한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
기초내과검진

배우는 감독의 ‘도구’ 연기하는 내내 ‘창작’이 목말랐다

‘인어사냥’으로 황순원문학상 신진상을 수상한 차인표씨는 “책을 쓰겠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 신애라씨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배우 차인표가 문학상 수상으로 ‘작가 차인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장편소설 ‘인어사냥’으로 황순원문학상 신진상을 받았다. 한국 강원도 통천을 배경으로 영생을 위한 인간의 탐욕을 다룬 이 작품은 “유명세보다 문학적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인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1997년 위안부 피해자 훈(이남이) 할머니의 귀환 방송이었다. “분노와 자괴감, 미안함이 뒤섞여 글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 결과 2009년 첫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나왔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깨달았다. “할머니들이 사과를 바라는 이유는 용서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작품에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일본의 정치적 사과보다 양국 국민이 공감과 이해를 통해 진심 어린

위안부 할머니 접하고 분노 감정 해소할 곳 없어 소설 써 영생 위한 탐욕 그린 수상작

반성과 연대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의집에서 만난 일본계 미국 하원의원 마이크 훈과도 ‘선한 마음이 모이면 역사도 바뀐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상작 ‘인어사냥’은 ‘어우야 담’에서 착안한 인어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대본을 읽고 활영 현장을 지켜본 경험 덕에 시각적 전개에 익숙하다”며 “글을 쓸 땐 영상으로 떠오른 장면을 문장으로 옮긴다”고 했다. 첫 소설은 10년, 두 번째 작품은 5년이 걸렸지만 ‘인어사냥’은 9개월 만에 완성했다. 차기작에는 ‘용’이 등장할 예정이다.

문학상 수상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상이 족쇄가 돼선 안 된다”며 “명예보다 평가보다 자유롭게 쓰는 기쁨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기와 글의 차이에 대

해서는 “연기는 창작자의 도구지만, 글 쓰기는 직접 창조하는 자유를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연기 인생도 평탄치 않았다. 1993년 공체로 데뷔했지만 오랫동안 무명이었고,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스타가 됐다. 그러나 ‘우리’ ‘친구’ 등 흥행작 제작을 거절해 ‘불운의 배우’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엔 배가 아팠지만, 지금은 그 길이 내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대신 그는 흥행보다 철학을 택했다. “프로젝트가 암시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기준”이라는 그는 영화 ‘크로싱’*을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꼽았다. 탈북자의 고통을 다룬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아무도 말지 않으려던 시나리오라 오히려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14편의 영화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차인표는 “창조의 기쁨과 자유를 느끼고 싶어 글을 쓴다”며 “명예보다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글을 계속 쓰고 싶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재미 한인 200만 달러 쾌척

사업가 노의용씨 삼육대에

개교 이래 최대 개인 기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알토스에 거주하는 사업가 노의용(제임스 노:James Rho) 장로가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삼육대는 지난달 30일 “이번 기부는 개교 이래 단일 기부로는 최대 금액”이라며 “노 장로의 누적 기부액은 총 208만 달러”이라고 밝혔다.

노 장로는 평생 ‘성실과 나눔’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 살아왔다. 이번 기부 금액 100만 달러는 현금, 나머지 100만 달러는 리빙트리스트 형태로 전달된다.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성장한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돋겠다”는 다짐을 품었다.

고학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1968년 삼육대 영어영문학과 1회생으로 입학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한 학기 만에 학업을 중단했다. 1973년 아내 이선은 집사와 각각 400달러씩 빚을 내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접시닦이로 일하며 시급 1달러85센트를 받았다. 이후 청소업으로 전환해 회사를 세우고, 한 인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경영을 실천했다.

노 장로는 “기금의 사용은 학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다”며 “삼육대에



왼쪽부터 노의용·이선은 씨 부부, 제해종 삼육대 총장. [삼육대 제공]

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 더욱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 총장은 “사람을 키우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다”며 “노 장로의 귀한 결심은 삼육대가 봉사와 헌신의 인재를 길러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현길 기자



고재현의 과학 산책

물리학자의 영화

‘물리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SF 영화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한 출판사가 전 세계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질문이다. 조사 결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2014년)와 프레스티지(2006년)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후자는 다소 의외지만 인터스텔라는 필자도 열번쯤 봤을 정도로 좋아하던 영화라, 이 소식이 반갑고도 당연히 느껴졌다.

인터스텔라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끈 이유 중 하나는 엄밀한 물리학 법칙이 영화의 서사 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킵 손의 자문으로 스토리의 전개에 다양한 과학 이론이 정확하고 세세히 반영되었다.



상대성이론에 따른 시간지연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가 배경인 장면만 나오면 무음 처리를 해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는 우주의 척박한 환경을 드러냈다.

하나 과학 법칙만으로 전개되는 이

야기란 다큐멘터리에 가까울 것이다.

이 영화가 과학자들의 선택을 받은 또

가르강튀아의 웅장한 모습이나 월흘의 내부 등이 많이 이 거론될 듯싶다. 하지만 내겐 인류 어려스호가 월흘 진입 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향

성 앞을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얇은 벽으로 감싸여 진공과 생명을 가르는 작은 공간, 하나님의 점처럼 움직이던 탐사선은 광막한 우주에서 우리를 품은 연약한 지구를 상징하는 듯했다. 영화적 상상력은 항상 가슴을 뛰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우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한림대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 교수

서울대 의대 294점, 경영 284점 정시 합격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에 논술 시험을 진행한다.

진학사가 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의 전년도 논술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술 지원자 중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런 가운데 종로학원은 이날 수험생의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정시 예상 합격선을 공개했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원점수(총 300점)를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지난해와 동일), 연세대 의예과는 293점(1점↑), 고려대 의대는 288점(2점↓), 서울대 경영대는 284점(1점↓), 연세대·고려대 경영은 280점(1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는 279점(8점↑)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273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71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69점,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266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268점 등으로 전망됐다.

이보람·김민상 기자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환변증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인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치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바이어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캐드 인스펙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너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 화1 \$1,600

금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챈들리 as Is 금매

\$300,000 (임대 \$1,8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텁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보수의 지적 우위·품위 추구, 청년 전면에 내세운 운동가

보수주의 설계자

윌리엄 버클리 100주년

'역사를 거슬러 서서 외쳐라, 멈추라고(Stand athwart history, yelling Stop)'. 1955년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탄생한 시사지 내셔널리뷰 창간사설이 표방한 보수의 정신이다. 발행인 윌리엄 F 버클리(1925~2008)가 썼다. 뉴딜 정책 이후 좌편향으로 건국정신에서 멀어져 가는 미국사회에 대한 경고였다. 내셔널리뷰를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한 키워드이기도 했다.

오는 25일은 미국 보수주의의 설계자 버클리의 탄생 100주년, 그에 앞서 19일은 내셔널리뷰 창간 70주년이다. 보수 정치사에서 그를 빼다면 재즈사에서 루이 암스트롱을, 축구사에서 펠레를 생략하는 것과 같은 결례다.

그는 부유한 석유사업가 집안에서 열 명의 형제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공교육을 불신한 부친은 뛰어난 가정 교사들을 고용해 집에서 사교육을 시켰다. 버클리는 시사도론·문학·예술·승마 등 다방면에서 귀족적 교양을 갖추게 됐다. 골수 보수주의자인 부친은 경제엔 자유방임주의, 외교엔 고립주의를 자론으로 삼았다. 버클리는 이를 유전자 복제하듯 물려받았다.

그는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징집돼 장교 후보생 훈련소를 나왔다. 미국 본토의 행정업무에 배치됐다 종전 후 예일대에 입학한다. 캠퍼스에 발을 디디자마자 토론 클럽을 석권한다. 차분한 바리톤, 여유 있는 미소,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농담, 논박보다 설득을 중시하는 논리, 그리고 사전을 찾으며 들어야 할 정도의 고급 어휘력까지.

글 솜씨도 타고났다. 시퍼렇게 선 논리의 칼날을 풍자와 냉소로 가린 채 바람같이 내리치는 검법과도 같은 필력. 버클리식 문제는 내셔널리뷰의 스티일로 굳어졌다. 그가 평생 쓴 책이 56권, 칼럼은 5600건에 달한다.

졸업 직후 1951년 10월 첫 저서 『예일의 신과 인간』을 냈다. 자유시장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야 할 예일대가 사회주의와 무신론에 지배되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타임, 뉴욕타임스 등이 일제히 서평을 썼다. 겨우 스물다섯 청년의 주장을 반박하는 하버드 대 교수의 칼럼도 나왔다. 책은 두 달 만에 2만 3000부나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책 56권 저술, 기고한 칼럼만 5600건

그는 유명해지면 곤란한 신분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그는 군 징집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F. 버클리는 보수주의자인 부친에게 자유방임 경제, 고립주의 외교의 신념을 물려받았다.

수주의의 기둥 라셀 커크, 버클리의 매체이자 매카시의 연설문 담당 브렌트 보젤… 여기에 공산당을 탈당하고 국무부 고위관리 엘자 히스를 소련 간첩으로 고발한 휘태커 체임버스도 기고했다.

하나하나 탁월한 이론가였으나 따로 놀았다. 이들을 한데 모아 보수 지성집단으로 만든 게 버클리였다. 중요한 건 하나의 목소리보다 하나의 지적 공간이었다. 극우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1962년 극우단체 존 버치 소사이어티(JBS)의 창립자 로버트 웰치의 극단주의적 음모론을 비난했다. 강경 우파의 이탈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킨 것이다. 감명받은 로널드 레이건이 "보수의 양심"으로 극찬하는 편지를 버클리에게 보냈다.

버클리의 활동은 지적 캠페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젊은이들을 모으고 연결해 거대한 정치운동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 출발선이 우파 청년운동의 현법으로 불리는 새런 선언(Sharon Statement)이다. 1960년 9월 11일 코네티컷 새런의 버클리 집에 1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자유를 위한 젊은 미국인들(YAF)'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채택했다. 버클리의 생각을 담아 내셔널리뷰의 스탠턴 에반스(1934~2015)가 썼다. 전통적 보수주의, 자유주의, 반공주의를 두루 담은 이 선언문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수운동의 기념비적 문서'로 평가했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보수주의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의 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전략은 독창적이었다. 이는 버클리의 렘넌트(Remnant) 정신에서 나왔다.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온 저술가 알버트 제이 뉴(1870~1945)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세계관이다. 구약에서 렘넌트는 복음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둔 자를 가리킨다. 렘넌트처럼 뜻을 함께하는 소수를 상대로 보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게 버클리의 구상이었다. 대학 강연 투어나 청년단체 활동이 그에 따른 것이다.

대입 들여다보기

빈센트 김 /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한때 미국 고등교육계는 매달 새로운 대학이 SAT·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test-optimal)으로 바꾸는 소식으로 들썩였다.

1969년 모든 칼리지에서 처음 도입된 테스트 옵션 제도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확산하다가 2020년 3월 코로나19팬데믹을 계기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수백 개 대학이 일제히 정책을 채택하며 대입 풍토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현재 상황은 다시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대학이 테스트 옵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많은 학교가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대학의 본질적 고민이 있다. 과연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좋을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들이 시험 점수의 의무화로 회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하다.

전국의 고등학교마다 성적 산출 방

식, 제공 과정, GPA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단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교는 AP과목 한 개만 제공하고, 다른 학교는 20개 이상을 제공한다.

가장 치부어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시험은 모든 학생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지표가 된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대학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표준시험 점수가 GPA보다 대학에서의 학업 성공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프린스턴대는 이미 향후 입학 전형에서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최근 9

개 대학에 제안한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에는 참여 대학이 모든 학부 지원자에게 표준시험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험 점수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해당 대학이 공개하는 '중간 50% 구간'이다. 자신의 점수가 이 범위 안에 있거나 그 이상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보다 낮다면 시험 선택 제출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프린스턴대의 중간 50% SAT 범위는 1500~1560점이다. 만약 SAT 1400점을 받았다면 프린스턴대에는 시험 점

수를 제출하지 않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하다.

다만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서의 다른 요소들인 성적표, 에세이, 과외활동, 추천서 등이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입학 사정관이 비교할 수 있는 중요 한 정보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 점수 없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GPA와 클래스 랭크가 해당 대학의 최근 입학생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 평균 UWGPA는 3.95였고, 69%가 4.0 만점을 받았다.

따라서 최상위권 등수를 유지하도록 전략적인 과정을 수강한 4.0 GPA 학생이라면 시험 점수 없이도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3.75 GPA에 시험 점수도 없다면 합격 가능성은 헌저히 낮아진다.

또한 일부 대학은 특정 GPA 이상이어야만 테스트 옵션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시스템은 GPA 2.8 이하 학생에게는 반드시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한다.

2025년 미국 대입은 분명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테스트 옵션은 여전히 대다수 대학들의 정책이지만 그 기조는 흔들리고 있다. 향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지원하려는 각 대학의 최신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시험 점수, GPA, 기타 강점을 냉철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테스트 옵션 정책의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준비된 자만이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듀 포스팅

교장 세라 박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지난 주 전국대학입학상담협회(NACA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입학사정관이 고등 수학인 미적분이 대학 입학에서 '황금 기준(gold standard)'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지난 30년간 학생들이 최고의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왔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한인 학생은 도전적인 학습 태도로 대학과정의 미적분(AP Calculus)을 수강하고, 더 도전적인 학생들은 대학 과정의 통계 수학(AP Statistics)까지 이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의 모든 고등 학교가 이러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미적분을 수강한 학생이 소위 명문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실제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 미적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꽤 어려운 미적분 수업을 배울 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 "도대체 미적분을 배워 어디다 써먹느냐"고 항변하

곤 한다. 그래서 필자는 몇 가지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자동차 속도계의 속도는 사실 '순간 변화율', 즉 미적분으로 계산된 값이에요", "의사들이 투약 간격과 용량을 정할 때, 미적분 기반 수학 모델을 사용합니다", "주식 가격의 변화 예측, 보험료 산정에도 미적분적 사고가 들어갑니다", "다리나 건물을 설계할 때, 하중(힘)이 구조물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계산도 미적분을 사용하죠" 등이다.

▶ 연구가 보여주는 통계적 발견과 두 과목의 이점

최근 NACAC(전국대학입학상담협회)와 Just Equations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The Limits of Calculus'에 따르면, 입학 사정관의 89%가 "고등 학교에서 미적분을 이수한 학생이 대

학 생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 했다. 실제로 미적분을 수강한 학생들이 더 선별적인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약 6% 포인트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대학 진학률이나 학위 취득률, 장기 소득에서는 미적분 이수자와 통계 이수자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Fordham Institute의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미적분을 수강한 학생이 초기 소득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적으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신 전공 및 진출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적분 이수자는 공학·컴퓨터과학·물리학 같은 전통적 STEM 분야에 더 많이 진출했고, 통계 이수자는 금융·비즈니스·데이터 기반 산업에 더 많이 진출했다. 결국 두 과목

모두 학생의 학업 및 진로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 초·중학교 수학 기초와 도전적 코스 준비의 중요성

그렇다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이나 통계 같은 고급 수학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연구는 한결같이 초·중학교 단계의 수학 기초를 강조한다. 단순히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수강 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수학, 기하, 함수 개념, 확률 등 선형 과정이 탄탄히 다져져 있을 때 고등학교 고급 수학 과정을 소화 할 수 있다.

Sadler와 Sonnert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미적분 성적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들었는지 아니라 그 이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가 되었는지였다. 따라서 초등·중학교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력, 논리적 추론, 연산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단순히 '미적분을 들어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도전적 과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수학이 주는 본질적 가치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훈련장이다. 미적분이든 통계든,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배우는 것은 공식 그 자체가 아니라 추론하고, 증명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교육자와 부모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수학을 통해 학문적 관점과 사고 틀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적분을 배우는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을 탐구하고 세상을 분석하는 힘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대학 진학 준비이자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될 것이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
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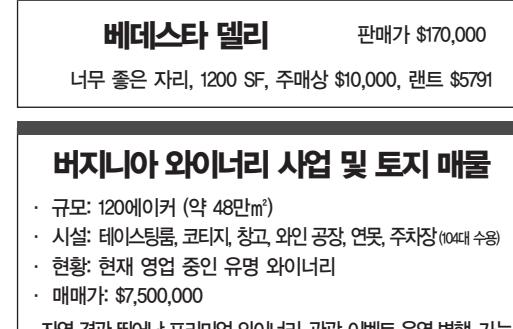
비엔나 NEW 상글

\$2,795,000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맥클린 NEW 상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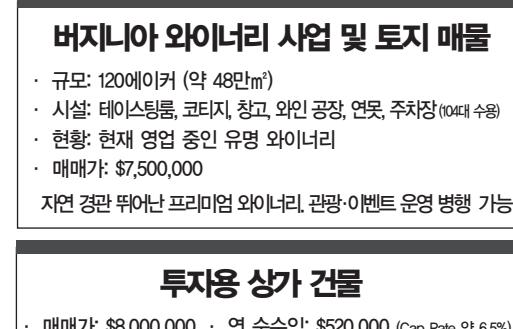
\$3,299,000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베데스타 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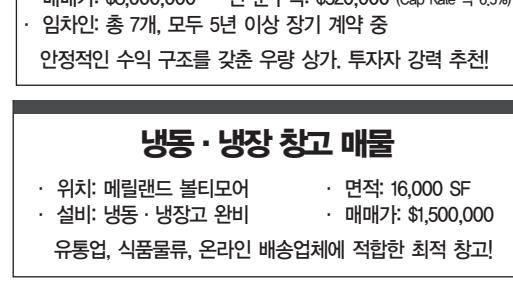
판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랠트 \$5791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 규모: 1200에이커 (약 48만m²)
-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청고, 와인 공장, 연못, 주차장 (1044 수용)
-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 매매가: \$7,500,000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 인정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천!
- 면적: 16,000 SF
- 설비: 냉동 · 냉장고 원비
- 유동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 매매가: \$1,500,000

저희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민 · 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드링)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부동산 · 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REALTY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
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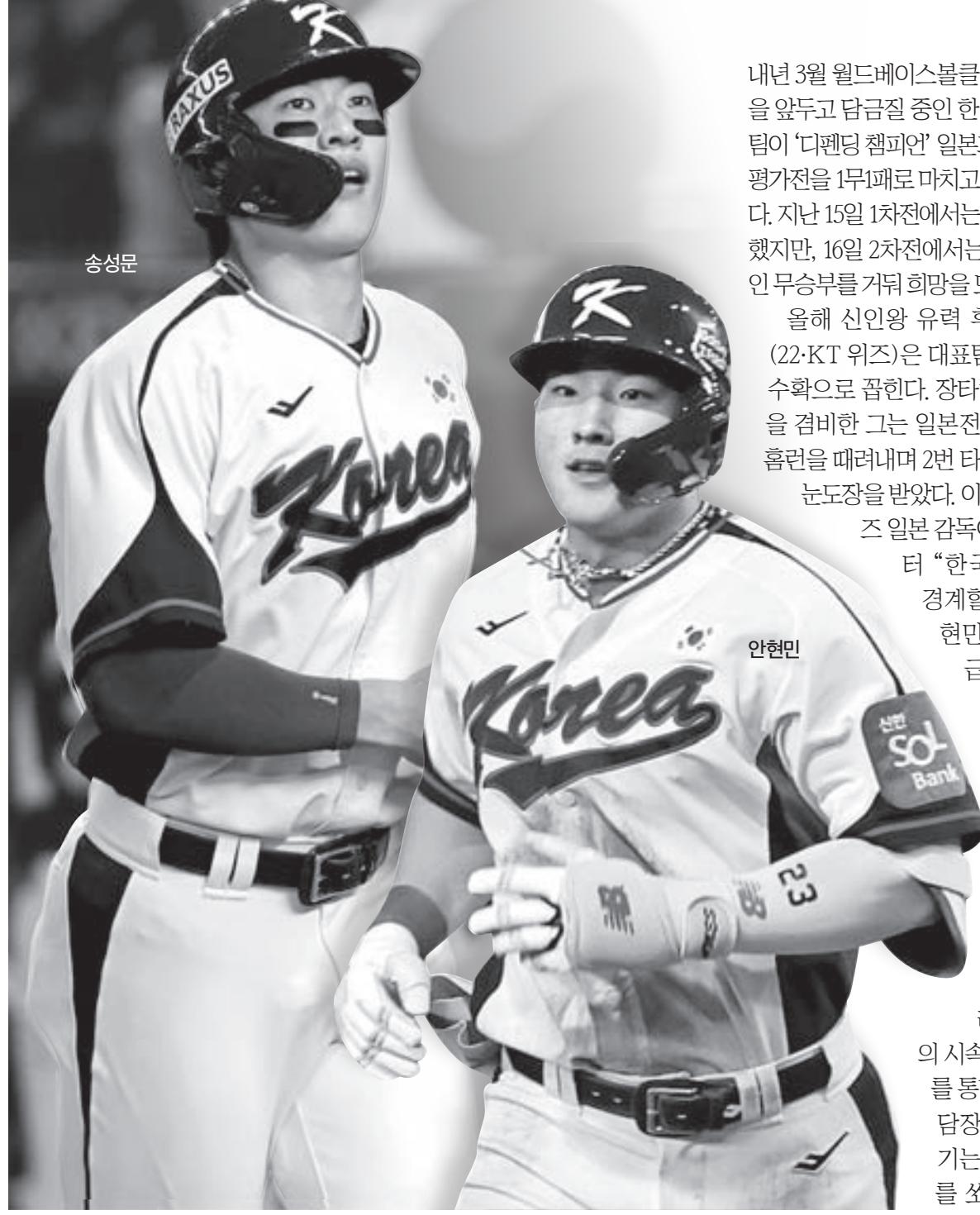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안현민·송성문, 큰 무대 타입이네



송성문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담금질 중인 한국 야구대표팀이 ‘디펜딩 챔피언’ 일본과의 두 차례 평가전을 1무1패로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지난 15일 1차전에서는 4-11로 완패했지만, 16일 2차전에서는 7-7로 극적 인무승부를 거둬 희망을 드리웠다.

올해 신인왕 유력 후보 안현민(22-KT 위즈)은 대표팀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힌다. 장타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그는 일본전 2경기 모두 홈런을 때려내며 2번 타자로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감독이 경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경계할 선수는 안현민”이라고 언급한 이유를 결과로 입증했다.

안현민은 1차전 4회 무사 1루에서 일본 선발 모리우라 다이스케의 시속 144km 직구를 통타해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기는 선제 2점포를 쏘아 올렸다.

송성문(29-키움 히어로즈)도 핵심 타자로 눈도장을 받았다. 3번 타순에 기용된 그는 1차전에선 안현민 바로 다음 타자로 나서 오른쪽 외야 관중석 상단(비거리 119m)에 꽂히는 백투백 솔

안현민, 일본전 2경기 모두 홈런포 상대의 집중 경계에도 존재감 뽐내 송성문,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

MLB 스카우트 앞 공수 실력 입증 투수진 사사구 23개, 제구 불안 숙제

로포를 터트렸다. 2차전에선 3회 1사 만루에서 선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일본전 2경기 성적이 9타수 3안타 3타점이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와 주루에서도 활복할 만한 센스를 보여줬다. 송성문은 조만간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할 예정이다. 그를 지켜보기 위해 도쿄돔에 MLB 스카우트가 여럿 방문했는데, 송성문은 완벽한 쇼케이스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단 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번 평가전에선 한국이 일본 정도의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 간절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내년 WBC가 끝난 뒤엔 꼭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바람을 낸 타선과 달리 마운드는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다. 평균 연령 22.1세의 젊은 투수들은 한일전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 했다. 1차전에 사사구 11개(볼넷 9개, 사구 2개)를 남발했고, 2차전에도 볼넷을 12개나 내주며 밀어내기로만 4실점했다. 2차전에 등판한 정우주(한화·30·ning 4탈삼진 무실점)와 박영현(KT·21·ning 무피안타 무실점) 정도가 합격점을 받은 투수들이다. ‘투수진의 국제대회 경험 부족’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야구대표팀은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거쳐 2월 초 WBC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다. 배영은 기자

오늘 가나와 A매치…원톱엔 오현규

카타르 월드컵 패배 등 전적 열세 흥명보, 스트라이커로 오현규 예고 승리 맨 포트2 가능성, 필승 다짐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을 앞둔 한국축구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 평가전에 나선다.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맞붙는다.

가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에 2-3 패배를 안긴 상대다. 당시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손흥민(33-LAFC)이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발휘했고, 조규성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평가전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는 찬바람이 불며 체감 기온이 1도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27-미트월란)이 머리로 2골을 터트렸지만 한 골 차 패배를 당했다.

3년 전 한국 골망을 흔든 모하메드 쿠두스(토트넘), 모하메드 살리수(모나코)는 부상 등의 이유로 방한 명단에서 빠졌다. 14일 일본과 원정 평가전 0-2 패배 직후 앙투안 세메뇨(본머스)도 소속팀에 복귀해 사실상 1.5군이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상대다. 북중 미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조 1위로 통과했고 한국과 상대 전적(4승3패)도 앞선다. 손흥민은 17일 “3년 전 패배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월드컵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강팀인 만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타르월드컵 당시 가나를 이끈 오토 아도 감독은 독일 함부르크 19세 이하 팀에서 손흥민을 가르치며 1군에 주전으로 기용하라고 제안했던 ‘은사’다.

손흥민은 “독일 생활 초기기에 힘들 때마다 건넨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경기장에선 서로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아도 감독도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이 영어가 서툴러 독일에서 뛰던 차두리를 통해 소통했다”며 “양발과 스프린트가 좋은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은 기존 손흥민과 오현규(24-핸크)에 조규성까지 가세해 경쟁이 뜨거워졌다. 14일 대전에서 열린 볼리비아전에선 답답했던 경기 흐름을 원톱 공격수 손흥민이 프리킥 한방으로 바꿨다. 무릎 수술 후 합병증을 극복한 조규성은 598일 만의 A매치 복귀전에서 653일 만의 득점포를 터트리며 경쟁에 불을 지폈다.

박린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빼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익숙한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수강생 모집

루미나 에스테틱 스튜디오 (애난데일 본사)에서
슈가링 왁싱 배우실 분을 모집합니다.

-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 한달 완성
- 왁싱 제품도 판매
-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슈가링
왁싱



240-205-4949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가 · 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9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워싱턴 베다니 장로교회(게이더스버그소재)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섬겨주실 반주자 한 분을 모십니다.
-예배시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연습시간 오전 7시 20분 및 예배)*일년에 두 차례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를 간 반주하여 야함
-지원자격: 세례교인으로 교회 반주에 은사와 사명감이 있는 분(성가 및 복음성가)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양고백이 담긴 간단한 자기소개서
-제출처: BPC.Music.Dept@gmail.com
-제출기한: 청빙시까지
-사례비: 교회 내규에 따름(추후통보,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 이민형 장로: 216-870-9234
이메일: leeminhung7896@gmail.com
김요한 목사: 301-215-0065
이메일: shalom1984@gmail.com
-교회주소: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TEL: 301-670-1200
<http://bethanyusa.org/>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온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한우,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라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2013년형 혼다 CRV SUV 97,500마일
6,700불, 다크 그레이, 상태 좋음
703-678-5421 (문자요망)

어큐라 MDX 2012년 134,000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왁싱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애난데일 루미나에스테틱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완성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려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퀴스토어 라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토 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선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스트 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훌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헬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케이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기운영, 널상호,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지하,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 흥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2층 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흥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흥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 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흥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 번째 입구,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 흥 이층 방 렌트
301-385-3535 (문자요망)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 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사업체 매매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위의 보장 텔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6am-3pm)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금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201-417-5350

러브랜드 흥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제,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중앙일보

서 함께 일하실 웨이터/서비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57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비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 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티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 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 우대, DC 전철역영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플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마루, 넓은 데크,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집, 교통편리,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GMU 대학 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트합니다.(웃슨 하이 학군)
방4, 화2.5, 차고2, 교통 편리(조지메이슨 1마일, 패어팩스 H 마트 1.3마일)
703-350-2278

스프링 필드 싱글홈(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가능 \$3,600
▶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된 지붕, 창문, HVAC, 턱진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2,900
로빈슨 하이 스쿨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 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차고 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데크,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아
이 함, 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로 케이션
▶ 571-239-605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 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턱진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 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600
방2, 화장실 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턱진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 1, 앤드 유닛 880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2,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위치 좋은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깨끗하고 환한 지하 전체 렌트(방, 거실, 목욕탕, 간이 주방) \$1,300

2층 넓은 안방, 목욕탕, 주방 \$1,200
주차 가능
문의 : 703-231-5572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로튼(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사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 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암 타운하우스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햄창으로 신분증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차고 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 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회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 분

또는 전체 쓰실 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리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망)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챈들리 금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애쉬번 타운하우스 \$670,000
방4, 화3.5, 차고 2, 최고 학군, RT267/7, 델
레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11/16/25 (SUN) 1-3pm 오픈 하우스
▶ 571-239-6054

우드브릿지 타운홈 \$399,900
방3, 화3.5,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 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 703-813-8949

엘리엇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차고 2
▶ 301-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3. Elkri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5. 앤리켓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수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세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9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 703-813-8949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차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 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 룸, 게임
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와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수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 3, 차고 2
3. 챔탈리 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 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
공 예정) 방3, 화장실 3
\$1,000,000
▶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에이커
프리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 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
여건
▶ 703-483-0505

사업체 매매

1. DC NW 찰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 DJ Lee 703-303-8003

베더스타 딜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확실한 순익 보장 딜리 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저렴한 렌트
비, 오랜 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 건물, 주 5일 (6am - 3pm)
703-300-7207 (문자)
꼭 관심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금매
\$280,000 매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2013년형 혼다 CRV SUV 97,500마일
6,700불, 다크그레이, 상태 좋음
703-678-5421 (문자요망)

어큐라 MDX 2012년 134,000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컨디션
703-909-9377

슈가링 육성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애난데일
루미나 에스테틱스튜디오)
자격증 소지 강사가 직접 지도, 한달 완성,
육성 제품 판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도 해
드립니다.

▶ 240-205-4949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흥,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허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산 가격에 팝
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소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
집 품, 강아지 케어리 등등

808-223-4825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럼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 (In, Out), 데크 면티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 / 재융자 / 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 냉동 쪽에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

심 있으신 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온장비수리, Ice Maker, 풀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설비 설치, 관리, 유지보수, 대행, 관리

▶ 703-550-5550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쿨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블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켄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져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블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alter: What's the matter Brian?

월터: 브라이언 무슨 일 있니?

Brian: What do you mean?

브라이언: 무슨 말씀이세요?

Walter: You look like there's something on your mind.

월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Brian: You're right. I'm anxious about a test I have

tomorrow.

브라이언: 맞아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걱정되요.

Walter: Have you studied for it?

월터: 공부는 했니?

Brian: Yes I have.

브라이언: 예 했어요.

Walter: Then don't worry about it.

월터: 그럼 걱정하지 마.

Brian: I don't want to fail this class.

브라이언: 이번 과목은 낙제하기 싫어서 그래요.

Walter: You won't. You'll ace it.

월터: 난제 안 할거야. A 맞을 거야.

Brian: I hope you're right.

브라이언: 아빠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one) looks like: ~해 보인다.

"You look like you're hungry. Do you want me to make you something to eat?"

(너 배고파 보인다. 뭐 먹을 것 좀 만들어 줄까?)

▶ (have) something on (one's) mind: 고민하는 게 있다.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you want to talk to me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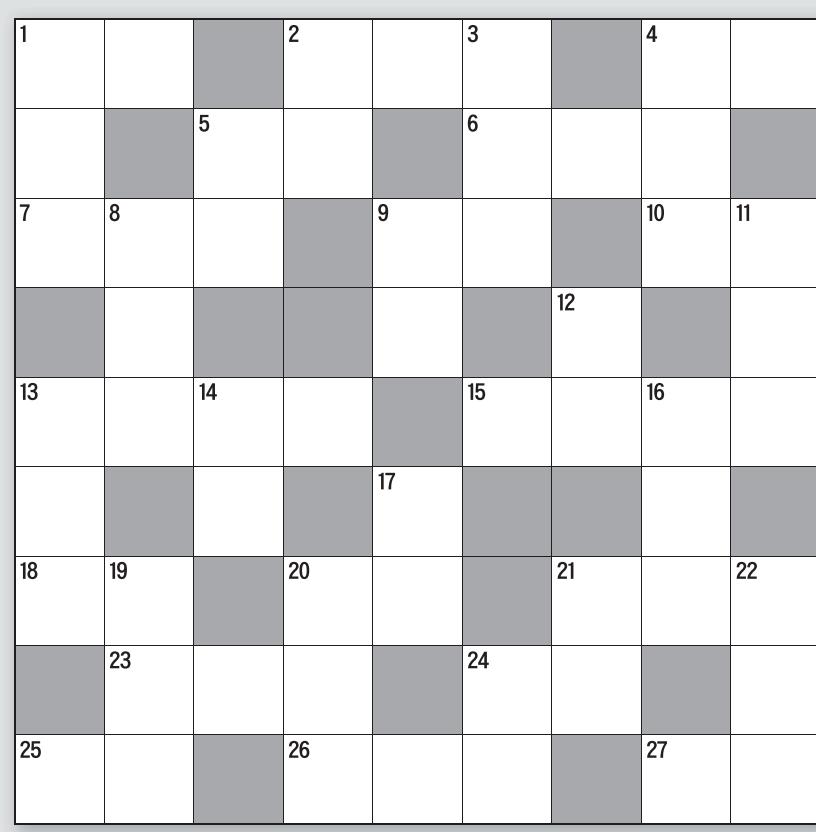
(너 나한테 얘기할 고민거리 없니?)

▶ ace it (or a test): 시험에서 A 학점을 받다.

"Iaced my math exam."

(수학 시험에서 A받았어.)

날마다 퀴즈



가로열쇠

(1) 치열을 벗어나서 배냇니 곁에 포개어 난 이.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2)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 (4)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세 쌍의 발과 두 쌍의 날개를 가지
 고 있죠 (5) 국수의 가락. 냉면 ~이 어찌나 질긴
 지 끊어지지 않는다 (6) 성춘향의 애인 (7) 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9)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 (10) 사나운 짐승
 이 물고기는 소리 (13) 개울이나 물이 끈 곳에 돌
 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15) 대
 대로 이어지는 여러 대의 자손. 자모모 (18) 물
 이 넘쳐흐르는 것을 막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 쌓은 것 (20)
 집 안에서 버린 물이 흘러 나가도록 만든 시설
 (21) 물고기의 배 부분. 한복 소매 아래쪽에 물고
 기의 배처럼 불룩하게 둥글린 부분 (23) 몸 안의
 기생충을 없애는 데 쓰는 약 (24) 마소의 귀에서
 턱 밑으로 늘어 단 방울 (25) 알프스 지방 목동들
 이 즐겨 부르는 특수한 창법의 노래 (26) 바다에
 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처녀 (27) 목의
 뒷등이 되는 부분

세로열쇠

(1) 젓갈을 담그거나 채소를 절일 때, 멘 위에 소
 복이 뿐여 얹죠 (2) 꽃이나 푸성귀, 돈 따위의 묶
 음 (3)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4)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은 임금의
 정복 (5) 끝에 솜을 말아 붙인 가느다란 막대 (8)
 하나님의 길고 큰 칼.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
 은 눈 속에 찬데/만리연성에 ~ 짚고 서서/긴 파
 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김종서) (9) 아
 궁이에 불을 때면 연기가 이곳으로 빠져나가죠
 (11) 등을 긁을 때 사용하는 도구. 등긁이 (12) 임
 금의 자리를 이를 임금의 아들 (13)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14)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16)
 부인하거나 조용히 하기를 바랄 때 손을 펴서 휘
 젓는 일 (17) 접을 쳐 준 값으로 주는 돈 (19) 화
 기(火氣)가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덥히는 장치.
 철기 시대부터 사용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장치이죠 (20)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 장국 등에
 뚝뚝 떼어 넣어 익힌 음식 (21) 등에 지는 가방
 (22) 꾀꼬하면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어 보셔
 요 (24) 개를 부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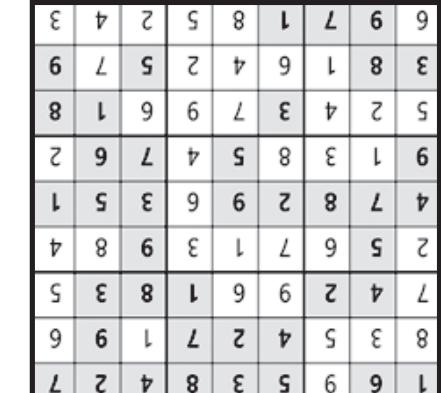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출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난 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LIBERTY BANKCARD
www.worldpay.com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트뱅크드와
월드페이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미전역
에이전트 구함

상담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트라이언트레이너 & 사라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세상담 원정 info@meridianwish.com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 card 와 Worldpay NPC Vantiv사로 전화 주세요

④ www.worldpay.com 424-332-3779

✉ Info@meridianwish.com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트 리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렐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렐휘노 고메즈 씨.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 10LBS·1BOX \$15/lb 대추	\$150 / 10LBS·1BOX \$12/lb 대추	\$100 / 10LBS·1BOX \$7/lb 대추
----------------------------------	----------------------------------	---------------------------------

* \$12/lb 대주는 \$15/lb 대주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목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N 57 15 Darby St Highland Ave E 210 215 10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세일 퍼리함
(State st.에서 내리서 북쪽으로 2분거리)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Old Lee Hwy.
Main St. Center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Burke Station Rd.
Woodson H.S.
T.J. Maxx
Main St.
Pinekett Rd.